

## 한글 창작의 길

- 이광수와 3·1운동 -

하타노 세쓰코(波田野節子)  
니이가타현립대학 명예교수

### 1. 시작하며

15세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 조선왕조에는 한문 사용자와 한글 사용자 두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했다. 개화기가 되자 이 두 계층을 가르는 것은 국한문과 순한글문이라는 표기의 차이로 바뀌었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고종의 칙령에 의해 한글을 ‘國字’로 삼고 공문서에 ‘國文’을 한글로 사용할 것을 명문화하자, 지식인은 한문 대신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 국한문을 쓰게 되었던 것이다.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은 순한글 신문이었지만, 2년 뒤에는 ‘숫신문’이라 불리는 국한문신문 『황성신문』과 ‘암신문’이라 불리는 한글신문 『제국신문』이 등장했고, 1904년에 창간된 애국계몽신문 『대한매일신보』는 지식인을 위한 국한문판과 서민을 위한 국문판 두 가지를 간행해야 했다. 『대한매일신보』를 강제 매수하여 ‘대한’이라는 글자를 떼고 총독부에서 간행한 『매일신보』는 1912년에 국한문판과 국문판을 합병하고 정치와 외신은 국한문, 3면 기사와 소설은 국문으로 하여 하나의 지면에 두 가지 표기를 공존시켰다. 그 때까지 별개의 신문을 읽었던 지식인과 대중은 같은 신문의 다른 장소를 읽게 된 것이다.

사실 이런 이중성은 한국어와 동일한 한자 문화권인 일본에도 있었다. 무사계급은 한자, 대중은 가나(假名)를 사용하던 전통을 계승하여 메이지시대 초기의 일본에는 ‘대신문’이라고 불리는 지식인 신문과 ‘소신문’이라 불리는 서민의 신문이 있었다. 단 ‘대신문’과 ‘소신문’의 차이는 문체와 내용에 있고, 표기는 양쪽 모두 국한문이었다. 일본어는 지금도 국한문으로 표기된다. 한편 한국에서는 점차 한자가 소멸되고 21세기에 들어 완전하게 한글만으로 표기되기에 이르렀다. 오랫동안 한문과 국한문을 매개로 하여 가까운 관계에 있던 한국어와 일본어는 현재 점차 멀어지고 있는 중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한국어 표기의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한국 근대문학 최초의 작가였던 이광수가 어떻게 해서 한글로 창작하기에 이르렀는지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근대 장편소설의 효시인 『무정』이 한글소설이 된 경위와 그 후 3·1운동과 주우한 이광수가 대중의 표기인 한글을 의식적으로 선택한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 2. 국문과 한문의 과도시대

이광수가 東學의 유학생으로 일본에 간 것은 1905년 여름, 열세 살 때의 일이다. 그 후 관비 유학생이 되어 1907년 가을 메이지학원 중학에 편입한 그는 이듬해 5월 『태극학보』에 「국문과 한문의 과도시대」라는 논설을 투고한다. 이것이 이광수의 활자화된 최초의 문장이다. 이 논설에서 그는 국민의 精髓인 국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대한제국의 쇠망을 초래했다고 하여

국문을 쓸 것을 주장했다. 이광수의 글쓰기 행위가 처음부터 민족의식에 뿌리내린 한글 위주의 집필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09년 겨울, 안중근사건에서 받은 충격 속에서 이광수는 시와 소설의 창작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무렵에 쓴 산문시 「옥중호걸」(『대한흥학보』, 1910.1)과 단편 「무정」(동, 1910.3-4)은 모두 국한문이다. 당시 이런 복잡한 내용을 한글만으로 전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1910년 봄에 메이지학원을 졸업하고 오산학교의 교원이 된 이광수는 7월 『황성신문』에 「금일 我韓用文에 대하여」라는 논설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그는 지금 당장 한글만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데다 한글로만 표기하면 ‘신지식의 수입을 저해’하므로 그것은 후일을 기약하기로 하고 일단 국한문을 쓰자고 주장했다. 메이지기의 일본은 서구문명의 새로운 관념과 신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일본식 한자어를 다수 만들어냈고, 한자권인 한국과 중국은 이들 어휘를 수용하면서 ‘신지식을 수입’했다. 이광수는 이들 한자어가 한국의 문명화에 필요하다고 여겨 국한문을 주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당시 유행하던 현토체 즉 한문에 한글로 토를 다는 데 불과한 국한문이 아니라, 고유명사와 한문에서 유래한 어휘 등 한글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최저한도의 어휘만을 한자로 한 국한문을 쓸 것을 제안했고, 실제로 당시 이미 최남선의 잡지 『소년』에 연재한 「어린 희생」(1910.2-5)에서 이런 주장을 실천하고 있다. 이 작품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문체로 씌어졌다. 「어린 희생」은 당대 일본에서 상연된 활동사진의 번안이고 『소년』에도 ‘번역’으로 게재되었는데, 이로부터 15년 후 이광수는 이 작품이 자신의 창작이라고 주장한 일했다.<sup>1)</sup> 새로운 문체의 창출에 심혈을 기울인 터라 결국 자신의 창작이라고 착각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이광수는 어떤 사람들을 독자로 생각하고 이들 소설, 시, 논설을 썼던 것일까. 국한문으로 쓴 것, 그리고 한자로써 ‘신지식을 수입’하자고 호소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지식인이다. 이 시기 이광수의 한글 창작은 민족의식에서 비롯된 추상적인 것이고 한글밖에 모르는 대중에게 읽히려는 구체적인 목적은 없었다.

### 3. 번역과 번안의 시대<sup>2)</sup>

서양과 조우하여 태어난 일본의 근대문학은 번안과 번역에서 시작되었다. 메이지기 초기의 출판계에는 번안작품이 잇달아 등장하고, 외국어를 배워 근대문학과 만난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근대적 감정을 자신들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한국 근대문학에서 그 행위를 처음으로 행한 이가 바로 이광수이다.

번역과 번안은 이광수의 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광수가 번안과 번역을 국한문이 아니라 순한글로 한 점이다. 「어린 희생」은 가능한 한 한자어를 배제했다고는 해도 국한문이었지만, 1913년 신문관 번역 시리즈의 하나로 간행된 『앵클 톱스 캐빈』의 번안 『검둥의 설움』<sup>3)</sup>은 순한글문이었다. 단 이것은 이광수에게 번역을 의뢰한 최남선의 방침에 의한 것이다. 이후 대륙방랑에 나선 이광수는 박지원이 한문으로 집필한 『열하일기』의 일부를 번안한 동화(「먹적골 가난방이로 한 세상을 들먹들먹한 허생원」)를 『아이들보이』(1914.6)에 발표하는데, 이것도 잡지의 주재자인 최남선의 방침에 의한 것으로 순한글문이었

1) 이광수, 「첫번 쓴 것들」, 『李光洙全集16』, 三中堂, 1963, p.267.

2) 이 소제목은 박진영의 『번역과 번안의 시대』(소명출판, 2011)에서 취했다.

3) 『검둥의 설움』은 메이지시기 일본에서 간행된 『앵클 톱스 캐빈』의 번역서 두 권을 이광수가 자신의 방식으로 융합시켜 번역한 것이다.(波田野, 2014)

다. 이밖에 시베리아의 치타에 머물면서 『대한인정교보』라는 재러한인 신문을 편집할 때는 석판 인쇄라는 기술적 제약 외에 교육을 안 받은 동포를 위한 쉬운 한글을 표방한 신문의 방침에 따라 논설까지 한글로 썼고, 한글을 해체한 풀어쓰기로 창작하는 등 의욕적인 시도를 했다. 異國의 언어에 둘러싸여 시도한 이러한 글쓰기 행위가 이광수의 한글 창작력을 키운 것이다. 그러나 귀국하자 그는 지식인 매체인 잡지에 다시금 국한문으로 썼다. 『무정』을 제외하고 1919년 상하이 망명 때까지 그가 쓴 소설은 모두 국한문이다.

와세다대학에 유학한 이광수는 유교를 공격하는 논설을 발표하여 지식 청년들의 마음을 얻었다. 지식 청년들을 구독자로 손에 넣고자 한 『매일신보』는 이광수에게 논설을 쓰게 하고, 이어서 신년소설의 연재를 의뢰했다. 이리하여 『무정』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 4. 한글소설 『무정』

무단통치기의 유일한 한국어 신문이었던 『매일신보』는 『장한몽』, 『해왕성』<sup>4)</sup> 같은 일본과 서양의 소설을 번안 연재하여 대중독자의 인기를 얻었다. 이 1910년대는 한국 근대문학에 있어서 과히 ‘번역과 번안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들 번안소설은 당시 독자들에게 미지의 문물을 소개하고 새로운 감성을 불어넣었고, 결과적으로 한국 최초의 근대소설 『무정』이 독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매일신보』의 연재소설은 모두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정』이 한글소설인 것은 당연한 일로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무정』은 한글이 아니라 국한문소설로서 연재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사실에 처음 주목한 것은 연세대학의 김영민 교수이다.<sup>5)</sup>

『매일신보』 지상에 1916년 12월 29일까지 4일에 걸쳐 나온 신연재소설 예고에 의하면, 『무정』은 종래의 소설과 달리 국한문으로 씌어진 “독자를 교육 있는 청년계에서 구하는 소설”이 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1917년 1월 1일에 연재가 시작된 『무정』은 한글소설이고, 국한문은 신문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변경한다는 작자의 편지의 일부가 사죄문으로 게재되었다. 연말 이들 사이에 방침이 뒤집힌 것이다.

이광수는 『무정』의 전반부 약 70회분의 원고를 겨울방학에 들어가자마자 단숨에 써서 신문사에 보낸 일을 회상한 바 있다. 『무정』이 국한문소설이라는 광고의 문구, 그리고 이광수가 이 무렵 항상 국한문으로 소설을 썼던 점으로 보아 이 원고는 국한문으로 씌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어쩌서 그것이 한글로 바뀐 것일까. 김영민 교수는 사죄문에 인용된 이광수의 편지에 근거하여 표기 변경을 결정한 것은 이광수 자신이었다고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국한문소설을 읽을 수 없는 대중 구독자가 떨어져나갈 것을 걱정한 신문사가 직전에 방침을 변경하고 작자의 편지를 날조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자료가 없는 이상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한국 근대문학사의 미스테리로 남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누가 표기를 변경했는지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돌연한 표기 변경으로 한자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정』을 읽고 감동한 점, 즉 『무정』의 문체는 한자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읽고 감동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때까지의 문장 단련을 통해 이광수의 문체는 어느새 한자가 없어도 의미 전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한

4) 『장한몽』은 오자키 코요尾崎紅葉의 『금색야차』를, 『해왕성』은 알렉상드르 뒤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쿠로이와 루이코黒岩淚香가 번안한 『암굴왕』을 재번안한 것이다.

5)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 1997, pp.446-451.

글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 『무정』의 첫 부분을 보자.

京城學校 英語教師 李亨植은 午後 두時 四年級 英語 時間을 마치고 내려쪼이는 六月 別에 맘을 흘리면서 安洞 金長老의 집으로 간다.

경성학교 영어교사 리형식은 오후 두시 사년급 영어 시간을 마치고 내려쪼이는 유월 별에 맘을 흘리면서 안동 김장로의 집으로 간다.

국한문의 한자가 한글로 바뀌어도 문제없이 이해할 수 있다. 단, 계몽소설 『무정』에는 논설을 그대로 삽입한 듯한 문장이 종종 보이고, 그런 곳은 한자 없이 의미 전달이 불가능한 까닭에 괄호 안에 병기한 한자가 자주 보인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광수가 『무정』의 후반부를 한글로 쓴 점이다. 전반부가 순한글문으로 지면에 게재되었으니까 그 다음을 이광수는 당연히 한글로 썼을 것이다. 그리고 한 글로 쓴 것은 문체의 근대화를 재촉했다. 나는 이전에 수년에 걸쳐 『무정』을 번역한 일이 있는데,<sup>6)</sup> 도중에 갑자기 훌륭한 묘사 대목이 나와 놀란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 그곳을 찾아봤더니, 73회였다. 이광수가 단숨에 쓴 약 70회란 소설의 흐름으로 보아 주인공 이형식이 경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조소받고 교사를 그만둘 각오로 교정을 떠나는 72회까지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즉 내가 놀랐던 묘사 대목은 한글로 쓰기 시작한 첫회였던 것이다. 이 부분을 보자. 하숙으로 돌아온 형식은 하숙의 노파가 옷통을 벗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본다.

형식은 정신없이 집에 돌아왔다. 노파가 옷통을 벗고 마루에 앉아서 담배를 먹는다. 역개와 팔굽이에 뼈가 울룩불룩 나오고 주름 잡힌 두 젓이 말라붙은 듯이 가슴에 착 달라붙었다. 귀밑으로 흘러내리는 두어 줄기 땀이 마치 그의 살이 썩어서 흐르는 송장물 같은 감각을 준다. 반이나 세고 몇 오리 아니 남은 머리터럭과 주름 잡히고 움속 들어간 두 뺨과 뜨거운 별에 시들은 풀넛과 같은 그 살과 허리를 굽으리고 담배를 먹는 그 모양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준다. (第73回, 『매일신보』, 1917.4.7)

자식을 여의고 오직 담배 피우는 낙으로 사는 노파의 모습이 거의 고유어만으로 훌륭하게 묘사되어 있어 노파의 인생까지도 느껴진다. 이 73회부터 한글로 쓰기 시작한 이광수는 이 부분을 특히 공들여 썼을 것이다. 나중에 보겠지만, 상하이에서 돌아와 「가실」을 썼을 때 이광수는 “읽는 소리만 들으면 알 수 있게” 순수한 고유어만을 사용하는데, 그 시도는 이미 『무정』에서 시도되어 이렇게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

한글로 표기됨에 따라 『무정』은 대중에게도 읽혔고, 내용의 근대성 덕분에 한글소설을 읽지 않았던 지식인 청년에게도 읽혔다. 표기의 벽을 깨뜨려 지식층과 서민층 두 계층이 비로소 동일한 작품을 읽고 감동했던 것이다. 김영민 교수는 이를 “참된 근대 민족문학의 성공”<sup>7)</sup>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광수는 한글밖에 읽을 수 없는 서민층을 독자로 삼고 『무정』을 쓴 것은 아니었다. 신문에서 예고되었던 것처럼 『무정』은 어디까지나 “교육 있는 청년”을 위해 씌어진 소설이었다. 등장인물은 경성학교 영어교사 이형식, 신문기자 신우선, 여학생 김선형, 유학생 김병욱과 같은 젊은 지식인이며, 『무정』의 마지막장에서 작자가 마음속에 그리는 것은 전문학교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학생들이다. 그리고 『무정』이 대중에게 인기를 얻은 뒤에도

6) 2005년 平凡社에서 간행.

7) 김영민,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출판, 2005, p.168.

이광수가 상정한 독자는 지식인 그대로였다. 『무정』 집필 바로 뒤에 쓴 「어린 벗에게」(『청춘』, 1917.7-11)와 11월부터 『매일신보』에 연재 시작된 『개척자』가 국한문소설이었던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까닭에 『무정』이 한글소설이 된 것은 김영민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우연한 결정”에 지나지 않았다. 이광수가 의식적으로 한글 창작의 길로 나아간 것은 3·1운동으로 폭발한 민중의 힘을 인식하고 나서의 일이다.

#### 4. 3·1운동과 「가실」

1919년 2월 도쿄에서 「조선청년독립단선언서」, 소위 2·8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이광수는 상하이로 망명했다. 그리고 2년 후인 1921년 3월에 조선에 돌아온 그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식하면서 순한글로 「가실」(『동아일보』, 1923.2.12.-23)을 쓰게 된다. 상하이에 있는 동안에 이광수가 상정하는 소설의 독자가 지식인에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로 바뀐 것이다.

이광수가 상하이로 망명하고 곧 3·1운동이 일어났다. 독립을 외치며 일어난 사람들과 총독부의 탄압에 대한 정보가 잇달아 본국에서 도착했고, 이광수는 동료들과 함께 이 소식을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하여 각국 신문사에 보냈다. 이때 그는 무질서한 힘의 폭발이 초래하는 희생의 비참함에 놀랐고, 처음으로 대중의 힘을 인식하고 대중을 계몽할 필요를 통감했던 것 같다.

이광수는 1919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 참석하고 임시사료편찬위원회의 위원을 맡는 한편 『독립신문』을 창간하여 사장으로 활약하지만, 도쿄 유학 당시 결핵에 걸렸던 까닭에 이듬해에는 건강이 악화된다. 게다가 임시정부에서는 격렬한 의견대립이 반복되고 『독립신문』도 자금 부족으로 휴간하게 되어 이광수는 자신이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그가 내린 결론은 조선으로 돌아가 안창호가 구상한 독립단체인 흥사단의 국내 지부를 만드는 동시에 문학으로 대중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것이었다.

조선으로 돌아가기 2개월 전 『창조』에 발표한 문학론 「문사와 수양」(『창조』, 1921.1)에서 이광수는 처음 ‘인민’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문예는 그 강렬한 자극과 무서운 선전력으로 인민에게 임하여 그의 정신적 생활의 指路者가 되는”<sup>8)</sup> 것이라고 문학의 힘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문학의 힘으로써 대중에게 정신적 영향을 주고자 하는 그의 의도가 엿보인다. 그 후 상하이에서 돌아와 발표한 논설 「중추계급과 사회」(『개벽』, 1921.7)에서 “무식계급과 무산계급”을 이끄는 “중추계급”을 조성하기 위해 “수양동맹”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그는 이듬해 ‘수양동맹회’를 조직했다. 한편, 「예술과 인생」(『개벽』, 1922.3)을 써서 민중을 위한 건전한 예술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무식하고 빈궁한 조선민중”에게 예술을 주라고 외친다. 이때 그는 지식인을 향해서 계속 국한문 논설을 쓰고 민중을 위해서는 소설을 한글로 쓰자는 방침을 정했던 것이다. 그 최초의 실천이 「가실」이었다.

한글도 읽을 수 없는 “무식하고 빈궁한 조선민중”<sup>9)</sup>에게 어떻게 소설을 읽힐 것인가. “아무쪼록 쉽게, 어문만 아는 이면 볼 수 있게, 읽는 소리만 들으면 알 수 있게, 그리하고 교육을 아니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도 독자에게 도덕적으로 해를 받지 않게”<sup>10)</sup> 「가실」을 썼다는 이광수의 언급은 그것이 音讀, 즉 ‘읽어줌’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일찍이 조

8) 이광수, 「문사와 수양」, 『이광수전집16』, 三中堂, 1963, p.18.

9) 위의 글, p.41.

10) 「서문」, 『춘원 단편소설집』, 흥문당, 1923.

선에는 이야기책을 낭독하는 전통이 있었고, 문자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은 타인이 소리내어 읽는 것을 듣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광수는 「가실」을 소리내어 읽어 이해할 수 있는 소설로 만들기 위해 순수고유어를 구사한 문체를 만들어냈다. ‘소리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문체는 표음문자 한글의 특질을 최고도로 발휘한 것이다. 귀가 아니라 눈을 사용하는 시각적인 한자의 힘을 빌려 의미를 전달했던 당시에 그것은 지난한 일이었다. 이미 『무정』에서 한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문체 수준에 도달했다고는 해도 그것을 의식적으로 행하고자 할 때 이광수는 커다란 곤란을 느꼈던 것 같다. 3년 후 이 시기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것(「가실」-인용자)이 끝난 때는 정말 기뻐다. 남들은 이것을 아무렇게나 말하더라도 내게 있어서는 이것은 처녀작이요, 첫아들이다.”<sup>11)</sup>라고 쓰고 있을 정도이다.

3·1운동은 이광수가 상정한 독자를 대중으로 바꾸었고, 표기를 한글로 바꾸었으며, 한글 표기를 감당할 수 있는 문체를 창출시켰다. 이광수라는 작가를 통해 3·1운동은 한국 근대문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 5. 끝내며

이광수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국한문에서 국문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였다. 이 두 가지 표기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이광수는 문장 단련을 계속했는데, 특히 최남선의 방침에 따른 순 한글문 번역과 러시아 체류 당시 편집자로서의 체험은 한글 집필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단련의 결과 『무정』은 표기가 변경되어 한자가 사라져도 독자가 문제없이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근대적인 수준에 달했던 것이다. 한글로 표기됨으로써 대중에게 읽히고 내용의 근대성 덕분에 지식인에게도 읽혀 『무정』은 국민적 소설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광수가 소설의 독자로 상정한 것은 지식인이고, 『무정』의 성공 후에도 그것은 바뀌지 않았다. 『무정』 이후 국한문으로 씌어진 소설의 문체는 오히려 『무정』 이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있다.

2·8독립선언을 기초하고 상하이로 망명한 이광수는 3·1운동을 통해 대중이 지닌 힘을 깨닫고 그들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 귀국한 후 “무식하고 빈궁한 조선민중”에게 읽히기 위해 「가실」을 쓰면서 한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도 귀로 들으면 알 수 있는 순수 고유어를 구사한 문체를 창출한 것이다.<sup>12)</sup> 「가실」은 지식인을 위한 논설 「민족개조론」을 대중용으로 소설화한 작품이며, 계몽적인 경향이 강하여 문학적인 면에서 『무정』보다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또 근대적 문체는 이미 『무정』에서 완성되었던 것은 보아온 대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실」이 이광수 문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작품에서 이광수가 대중을 독자로 하는 자세를 확립한 점에 있다. 이후 이광수는 일관되게 대중을 독자로 하여 소설을 썼다. 이 때문에 작품이 통속적이라고 평가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응했다.

만일 내가 쓰는 소설이 대단히 평이해서 누구나 이해·감상하는 것이 죄라고 하면 그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중략) 나는 독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윤리적 동기가 없는 소설을 써 본 일이 없다는 것만 重言해 둔다.<sup>13)</sup>

한글 창작을 통해 자신은 대중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계몽의

11) 이광수, 「첫번 쓴 것들」, 『이광수전집16』, 三中堂, 1963, p.267.

12) 김영민, 「한국 근대문체의 형성과정」, 『한국현대소설학회』 65, 2017, pp.65-67.

13) 이광수, 「余의 작가적 태도」, 『이광수전집16』, 三中堂, 1963, pp.194-195.

의도를 가지고 창작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이 말에는 드러나 있다.

参考文献

李光洙, 『李光洙全集』, 三中堂, 1962-1963.

金榮敏, 『韓国近代小説史』, 솔, 1997.

－,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출판, 2005.

－, 「한국 근대문체의 형성과정」, 『한국현대소설학회』 65, 2017.

波田野節子, 「李光洙と‘翻訳’—『검둥의 설움』を中心に—」, 『東京大学 韓国朝鮮文化研究』 13, 2014.

－, 「『無情』の表記と文体について」『朝鮮學報』236、2015、1-28

－, 「『無情』から「嘉実」へ—上海体験を越えて—」, 『朝鮮學報』 239・240 合併号, 2018 刊行予定.

－, 「3・1 運動と李光洙」, 『歴史評論』, 2019.3 刊行予定